067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6년 11월 9일(월)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WEC 하이퍼카 데뷔 시즌 성황리에 마쳐

- ‘몬차 6 시간’에서 GMR-001 하이퍼카 #17 차량 완주 성공하며 13 위 기록
- 국내 제조사 최초로 WEC 하이퍼카 클래스 총 8 개 레이스 소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 과시
- 올해 확보한 데이터 및 경험 적극 활용…동일 드라이버 라인업으로 내년 WEC 출전 예정
- 제네시스,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및 신규 드라이버 육성 위한 다양한 노력 지속

제네시스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현지시간 8일(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몬차(Monza)에서 열린 2026 FI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국제 자동차연맹)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마지막 라운드인 ‘몬차 6시간(6 Hours of Monza)’에서 완주에 성공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6시간 동안 펼쳐진 치열한 경기 끝에 GMR-001 하이퍼카 #17 차량은 13위로 기록했으며, 예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19 차량은 경기 초반 2시간가량 선두권을 유지했으나 이후 시스템 이상으로 리타이어 처리됐다.

몬차 6시간 완주를 끝으로 제네시스는 국내 제조사 중 최초로 WEC 하이퍼카 클래스 전 시즌을 소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Confidential - Not for Public Consumption or Distribution

067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PRESS RELEASE

제네시스는 지난 2024 년 모터스포츠 공식 진출을 발표한 이후 499 일만에 팀 창단과 차량 개발을 완료했으며, WEC 하이퍼카 클래스 데뷔 경기인 '이몰라 6 시간'부터 차량 두 대 모두 레이스를 완주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스파-프랑코샹 6 시간'에서는 #17 차량이 8 위를 달성하며 첫 포인트를 획득했고, WEC 3 라운드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라 불리는 '르망 24 시간'에서는 #19 차량이 여러 차례의 엔진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완주에 성공하며 글로벌 모터스포츠 무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나아가 '론 스타 르망'에서는 #17 차량이 7 위를 기록하며 시즌 최고 성적을 달성했으며, '바르셀로나 6 시간'에서는 완주에 더해 WEC 역사상 최연소 선수(#17 차량 마티스 조베르)의 폴 포지션[1]을 달성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올해 WEC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탕에는 데이터 및 경험에 기반한 운영과 베테랑/신예의 조합으로 구성된 최고의 드라이버 라인업이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날씨 및 트랙 환경에 맞춘 타이어 운영, 과감한 피트 스톱[2] 전략 등으로 레이스를 지속했으며 안드레 로테러, 피포 데라니 등 베테랑과 마티스 조베르 등 젊은 드라이버들의 조합을 통해 흔들림 없는 팀워크를 이어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성과에 대해 Motorsport.com, RACER 등 글로벌 모터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약 500일에 걸친 집중적인 준비 과정이 완성도 높은 데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1] 하이퍼폴에서 1위를 차지해 레이스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

[2] 주유 및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시간 최소화

Confidential - Not for Public Consumption or Distribution

PRESS RELEASE

“제네시스는 하이퍼카 클래스에서 기존 질서를 흔드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호평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스포팅 디렉터 가브리엘레 타르퀴니(Gabriele Tarquini)는 “몬차 6시간 레이스 예선의 훌륭한 성과와 본 레이스 초반 두 시간을 통해 GMR-001 하이퍼카의 잠재력을 확인했으나, 전체적으로는 희비가 교차한 주말이었다”며 “최근 경기에서 파악된 개선점을 보완해 2027년 시즌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GMR-001 하이퍼카 #17 차량의 피포 데라니(Pipo Derani) 선수는 “파워트레인 문제로 레이스 후반에 페이스를 많이 잃어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내내 발전하며 얻은 데이터가 많다”며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팀은 한층 더 성장해 2027년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올해 WEC 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드라이버들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차량 성능과 운영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내년 WEC 에도 동일한 드라이버 라인업으로 출전해 총 9 개의 레이스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및 신규 드라이버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부산모빌리티쇼, <제네시스 마그마 X GMR> 특별전,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라이브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모터스포츠를 알렸으며,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e 스포츠팀 출범과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트라젝토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수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끝]

Confidential - Not for Public Consumption or Distribution

067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PRESS RELEASE

<사진설명>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WEC 하이퍼카 데뷔 시즌 전 레이스 완주

제네시스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현지시간 8일(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몬차(Monza)에서 열린 2026 FI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국제 자동차연맹)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마지막 라운드인 '몬차 6시간(6 Hours of Monza)'에서 완주에 성공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몬차 6시간 완주를 끝으로 제네시스는 국내 제조사 중 최초로 WEC 하이퍼카 클래스 전 시즌을 소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사진1) 이탈리아 몬차의 아우토드로모 나치오날레 몬차 트랙에서 '몬차 6시간' 경기 중인 GMR-001 #17 차량

사진2) 이탈리아 몬차의 아우토드로모 나치오날레 몬차 트랙에서 '몬차 6시간' 경기 중인 GMR-001 #19 차량

Confidential - Not for Public Consumption or Distribution